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어췌어 응답해 드립니다. 성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본날곳: 우 110-030 서울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알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생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583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6월 21일(음력 5월 26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29

대구의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법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죽고 살고 하는 이 도리가 바로 부처님 도리입니다. 우리 삶을 떠나서는 부처님 법도 없을 것이고 우리 자체가 없이는 부처님도 없을 것입니다.

'불(佛)'이라 하는 것은 일체 생명의 근본이 불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敎)'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을 하면서, 또 통신과 통신으로 통신을 하면서, 말과 말로 전달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佛敎)라는 그 단어는 전체 삼천대천세계가 돌아가는 진리인 것입니다. 머리를 쥐고 승복을 입고 푹탁을 치는 것만이 불교가 아니라 전체, 생명이 있는 것 움직여지는 것 말하는 것 모두가 다 불교인 것입니다.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것만이 불교가 아니라 전체, 곤충 한 마리의 생명도 생명이 있으니만큼 불이요, 지수화풍도 불이요, 모두가 불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 불교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한마음으로 공생 공음 공체 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찌 달리 종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삶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불자로 하여금 광대무변하며 더하고 덜함도 없는 이 진리 자체가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마음을 넓게 써서 모든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고정됨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님들이 목탁을 치고 머리를 쥐고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고정되게 보고 꺾보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해서서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쥐는 것은 이 세상만사가 천차만별로 고정됨이 없이 무상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무명초라고 해서, 그릇을 비운다는 뜻에서 다 꺾어 버린 겁니다. 승복이라는 것은 순색을 표현한 것으로서 검지도 않고 회지도 않고 언제나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뜻으로 따지게 되면 얼마나 귀중한 웃인지 얼마나 귀중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지만 일체 만물만생이 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서 돌아가고, 과일나무도 10리 안팎으로, 아니 20리 30리라도 서로 말 없이 말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하고 열매를 맺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체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를 모시면서 말로만 그러나 옳으니 시비를 해서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마음과 마음의 전달로서 자녀들과 부모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식이 나가서 자고 들어오고 나쁜 일만 저지르고, 부모의 속을 썩이는 것이 아무 말도 다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일러 했습니다. "말보다가 몸을 붙잡으려고 하고 몸으로도 몸을 붙잡으려고 한다 면 붙잡아지지 않는다.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결결이 돼 있고 바로 이 세상만사가 다 마음의 근본에 가설이 돼 있다. 그러나 우주간 법계가 다 그렇게 같이 상응하면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라. 아들이라고 알고, 부모라고 아는 생각이 바로 가설이었다는 것이다. 가설이 돼 있으니 내 주인공에 말기엔 함께 돌아가게 된다. 즉 말하자면 내가 있음으로써 바로 불이 들어올 수 있고, 불이 켜질 수 있고 불이 꺼질 수 있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생명의 근본이 들어 아니 뜻이, 전력이 들어 아니 뜻이, 금속이 들어 아니 뜻이,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가니까 용도에 따라서 자기가 전력이나 금속을 끌어 쓰는 데에 달랐다. 모든 것은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다 놓고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 나갈 수 있다.' 할 때 비로소 이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바로 그쪽에도 불이 들어오게 돼서 밝게 살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해 드렸죠. 그랬더니 마음으로 그대로 하면서,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하고 모든 것을 따뜻하게 해 주면서 안으로 놓고 끌리고 하니까 너무 착해졌습니다. 그 사람 하나뿐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살림 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본과 마음을 내는 거와 육신이 움직여지는 그 자체가 같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체 만물만생이 다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또 먹고 삽니다. 우리가 지수화풍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지수화풍으로 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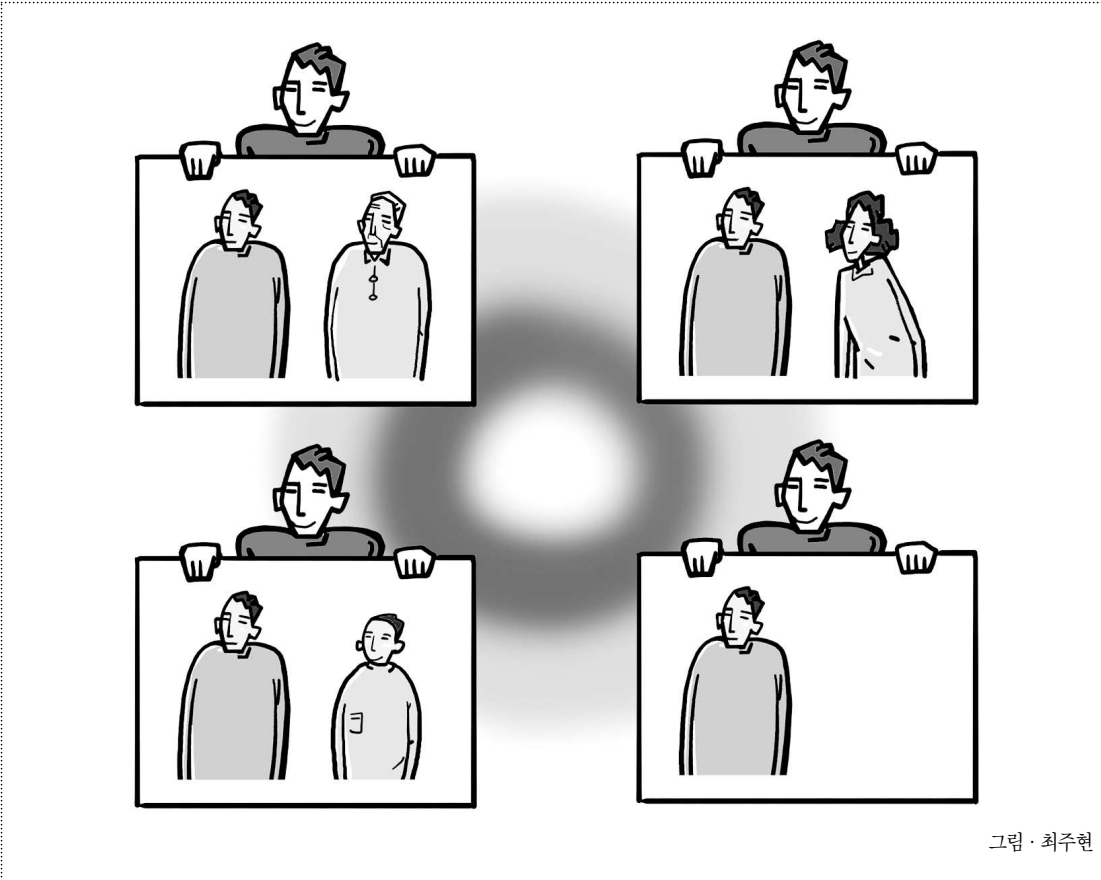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 한생각 잘 돌리면 밝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서 강력이나 자력 통신력 전력, 이것이 항상 우리 들한테 재료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재료로 주어져 있으면 마음과 마음이 삼천 년 전이든 삼천 년 후든 언제든 전달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진리와 같이 부처님의 마음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 인입니다. 4월 8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죠? 어떤 분 들은 4월 8일에만 부처님이 오셨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 계신 한 그 마음속 에는 항상 부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분 앞 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 까 네 가지 재료가 다 있다고 그랬죠? 전력이나 자력 통신력 광력이 전부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 다고요. 주어져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마 음입니다. 만약에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한 바구 니에 담긴 꽃다발 하나라 한다면,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다 꿰뚫어서 맛을 알고 보고 감촉하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로 합쳐 여러분으로부터 곤충에 이르기까지 다 나누면서 응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 보지 않아서 맛을 모르는 것은 생각도 나지 않듯이, 중생들은 마음을 널리 넓어야 낼 수가 없습니다. 내 몸 안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 나지 못하는 그 자체가 바로 중생이기 때문입니 다. 그러나 부처님은 마음을 널리 내시기 때문 에 어느 거 하나 아니 되시는 게 없고, 어느 모습 하 나 부처 모습 아닌 게 없고, 어느 자리 하나 부처 자리 아닌 게 없고, 어느 생명 하나 부처 생명 아 닌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한생각으로 우주 삼천대 천세계의 일체 만물만생을 다 내 마음 아닌 게 없 이 나누시는 데 대하여, 내 몸 바깥을 벗어나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 자체가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

마음을 떠나서는 절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저 기도나 하고 이러 는 게 부처님 법인 줄 아시고 훨씬 찾고 독성 찾고, 또 약사 찾고 지장 찾고 이렇게 갈같이 나누어서 찾는데 말입니다. 모두가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 한 아버지나 한 어머니가 자 동적으로 어머니라는 이름을 갖고, 자동적으로 아 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때때 따라서 "여보!" 하면 남편이 되고 "아무개야!" 하면 아들이 되고 "여보 게!" 하면 사위가 되고 "형님!" 하면 형님이 되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뜻과 말과 행이 화해서 바뀌기 면서 생활을 여여하게 해 나가듯이 그렇게 해 나 갈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놓고 빌 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자체, 부처를 안 하면 이 사를 가지 못한다는 생각 자체,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여러분의 관습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봅니다. 이제라는 개선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 음 한생각을 잘 돌린다면 너무도 광대무변한 도리 에 의해 밝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부처 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뜻과 부처님의 가르 침을 몸소 실천하면서,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나 가는 것이 진짜 우리들의 법이며 우리들의 자유스 런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는 책을 봐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생각을 해 봤다가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구에 와서 여기 들 어올 때까지, 지금까지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안이 서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음 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그릇이 무조건 어느 거 든 지 다 받아들여서 내 거를 만들고 내가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틀 아닌 도리를 가져야만이 아주 마음과 마음이 편안하게 돼서 나도 여러분 한테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마음의 그릇을 텅 비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만이 서로가 다 편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할 다섯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절에서 예불을 모실 때 '계향(戒香) 정향(定香) 해 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 향)'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열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실천하라는 겁니다. 꽃 을 공양 올릴 때도, 여부하면 꽃공양입니까? 일 체 만물만생이 다 같이 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을 꽃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초를 켜는 그 마음 자체를 바로 밝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기 물을 떠서 공양을 올리는 그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지 혜로운 마음으로써 향을 피우는데, 악한 것은 다 스리면서 선하고 아주 똑바른 마음을 내서 굴러 는 것이 바로 향을 피우는 것이며 마음의 향입니 다. 그래서 이 모두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떠나서는 절대 아무것도 없습니 다.

그리고 여러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상대가 생겼고 부처님도 생겼고 종교도 생겼고 상대성 원리가 모두 생긴 것이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지 않았 다면 어찌 부처님 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발견하라 하는 겁니다. 내 집에 전화를 놓지 않는다면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전화를 받을 수도 없는 것과 같으니 바깥으로 찾지 말고 내 마 음속에서 찾으세요. 법당에 가더라도 부처님 형 상이 내 형상이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요 그 생명 이 내 생명이니 들로 보지 말고 하나로 모든 것을 통괄해서 내 주인공에 놓고 '때려야 될 수 없는

내 친구여! 나를 관리인으로, 시자로, 또는 심부름꾼으로 삼아 이렇게 몸뚱이를 끌고 다니니 모든 것은 다 당신이 하는 거야.' 하시라는 겁니다. 이 거 보십시오. 집이 험어지면 집에 들어 있는 주인이 고침니까, 험어진 집이 고침니까? 반드시 집주인이 집을 고칩니다. 그렇듯이 제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꿰어 낼 수 없고 이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꿰고 다니는 바로 자성부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 있는 자성중생들을 다스리면서 제도해야 여러분이 제도가 되고 깨친 다 이 소립니다.

그 래서 첫째 '계향' 할 때 말입니다. 먼저 내가 태어난 까닭에 계향이라는 것도 있고 계향도 생겼고, 또 스님 노릇도 하고 부처님 법도 배우고 이룰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머릴 쥐고 안 쥐고 이걸 떠나서, 가정에서 살림을 하실 때에 남의 탓으로 돌리니까 화도 나고 미움도 생기고 증오도 생기고 이런 거지 내 탓으로 돌린다면 하나도 밟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이지 누구 탓이겠습니까? 첫째는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향' 할 때는 '모든 것이 내 탓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나 안에서 일어나는 거나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거기에 뉘을 때에 미움도 사라지고 증오도 없어지고, 남의 탓으로 돌아 가질 않기 때문에 화복이 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이니 잘못했든지 잘못했든지 내 탓으로 돌린다면 그게 바로 화복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요, 또는 깨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요, 업보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계향이지 그냥 입으로만 부르라는 계향이 아닙니다. 250계든 280계든 일일이 개수로 따져서 어떻게 계를 지킵니까? 나 하나만 죽는다면 계 전체를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향 하나만 잘 지켜도 천차만별의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있으며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향이니, 이 세상 모든 만물만생이 근본에 따라서 하나로 돌아옵니다. 내 마음속에 바로 주인공 선을 세워서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거기 놓고 밖에서 일어나는 것도 거기 놓고 '잘못 일어나게 한 것도 너니까 잘 일어나게 하는 것도 너지.' 하고 잘못되는 것은 한생각 잘 내서 돌려놓으면서 둘러서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향이라고 보 니다.

이것을 그냥 하찮게 듣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린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과 부드러운 말을 해 볼 때에 서로 조건 없는 사랑을 같이 할 수 있고, 화복을 가져올 수 있고, 재수도 있을 수 있고, 공덕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생활을 바로 여여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해향이니,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들로 불이 없이 관찰하고 들로 보지 않고 다스려 나가는 것이 바로 해향입니다. 그리고 느끼고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해향입니다. 꽃을 스님네들만 '정향 해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생활 속에서도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들로 보지 않는 사랑, 들로 보지 않는 마음을 실천하십시오.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씨, 부드러운 말, 이것을 떠나서는 화복을 가져올 수가 없고 사랑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계의 나 자체를 물질계로 내놓으면서 우리가 서로 돌아 나게 끌리면서 참다운 삶을 보낼 있게 누릴 것 입니다.

해탈향이니, 만물만생 그리고 내 몸속에 있는 자성중생들 모두를 무명 굴레에서 벗어나 항상 밝아서 여여하니 바로 그것이 해탈향입니다. 항상 마음과 마음이 일체 만물만생하고도 전달이 되면서,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자성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무명 굴레에서 벗어나게 돼서 여여하니, 항상 밝아서 안팎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 중생들을 들로 보지 않고 제도하게 돼서 가고 오면 서도 그대로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해탈지견향이니, 삼라만상 만물만생을 생각하고 보살피듯 밝게 보살핌이 항상 결핍 없이 귀족한 까닭에 더하고 덜함도 없이 여여함을 바로 해탈지견향이라고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부처님께서 "세 가지 조건이 있 는나라. 너는 해탈지견향까지 이루었다 하더라도 첫째에 믿음이 있어야 하고 둘째, 다 버려서 다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셋째, 너는 누가 보시를 해 달라고 하든지 한 하도 어긋남이 없이 다 출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텅 비워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옥도 천당도 바로 현실에,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수화풍이 대두가 돼서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여러분 앞에 충만히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도 마음과 마음, 정신계의 50% 물질계의 50%가 서로 상응하면서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한시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맥 동맥이 뛰듯이 말입니다. 지구가 우리를 끌고 지금 어디로 돌아가는지 우리가 모르듯이, 우리 몸통이 속에 있는 중생들도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통이 속에 있는 자생중생들부터 제도하러 이런 말입니다. 안팎으로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내 주인공에 맡겨 놓아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닥쳐올 때도 내가 생각해 보고 내가 내 마음으로 나를 다스리면서 상대방을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됐을 때, 형님이 됐을 때, 남편이 됐을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나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처인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요리해서 드려야만 이 맛있게 집어 잡는는지...

우리 마음은 지구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도 마음은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뭐가 놓여 있고 뭐가 어디 있고 이런 것도 다 캐치해 가지고 지금 한순간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그렇게 크고 작음이 없이 여여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지 못하고 항상 물질적인 문제에 의해서, 요것은 못한다. 요것은 한다. 요것이 간다 온다... 이러한 관습에 의해서만 살아나가고 계십니다. 좀 경중 뛰어넘어 보십시오. 내 한생각에 의해 내 몸속의 모든 자생중생들을, 즉 말하자면 일체 생명들, 의식들을 한마음으로 리드해 나갈 수 있고 바깥으로는 바로 마음과 마음을 조절하면서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오다가도 '아이구, 이 집에 들어가 봤자 괴로움만 가져올 거야.' 하고 나간다고요.

또 가만히 보십시오. 모두가 내면의 정신세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유도 내부에 있는 생명들, 의식들은 내 몸통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어디로 헤메고 돌아다니는지 하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구가 어디로 돌아다니는 줄을 모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소가 잘못 가면 '이리!' 하면서 고삐를 잡아당기듯이 하나하나 다스리면서 거기가다 다시 놓아야 합니다. 나왔던 구멍에다 자꾸자꾸 다시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예전에 한 말을 그냥 되합니까? 예전에도 항상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나온다고요. 물질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입력을 해 넣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살아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거지 누가 입력을 해 넣고 안 해 넣고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어떻게 말을 했느냐,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 주고 뺏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입력이 돼서 현실성 나오는 팔자 운명과 고통, 유전성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인과성, 이 모두를 그 나오는 데다가 되팔겨 놓으면 퇴입력을 하는 게 됩니다. 퇴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했던 것이 다 없어지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나오는 데다가 놓는다면,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 한 구멍에다 되놓는다면 바로 앞서의 입력했던 것이 다 없어짐으로써 현실의 그릇이 비었다가 왔다가 비었다가 왔다가 하면서 항상 밝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여여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유롭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생중생들이 다, 내가 마음먹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됨으로써 한마음으로 뭉쳐 준다 이 소립니다.

우리가 이 모두를 잘 안다면 참으로 말로 행동할 수 없으리만큼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마는, 오늘은 어찌 이 말을 좀 하다가 저 말을 하다가 이렇게 되는군요. 아야 여러분이 이라고저라고 이라고저라고 하니깐 나 역시 그런가 봅니다. 하하... (대중 박수 할 때는 너무도 많은데 왜 이렇게 할 말을 제대로 못할까요? 여러분한테 커다란 드림몽으로 기쁨을 퍼붓는다 하더라도 작은 그릇으로 받는다면 그냥 밖으로 쏟아질 테니까 그럴 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각자의 그릇에 채워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스스로 받아들입니다. 아야.

※ 위 법문은 1993년 6월 6일 범형제법회에서 설립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미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미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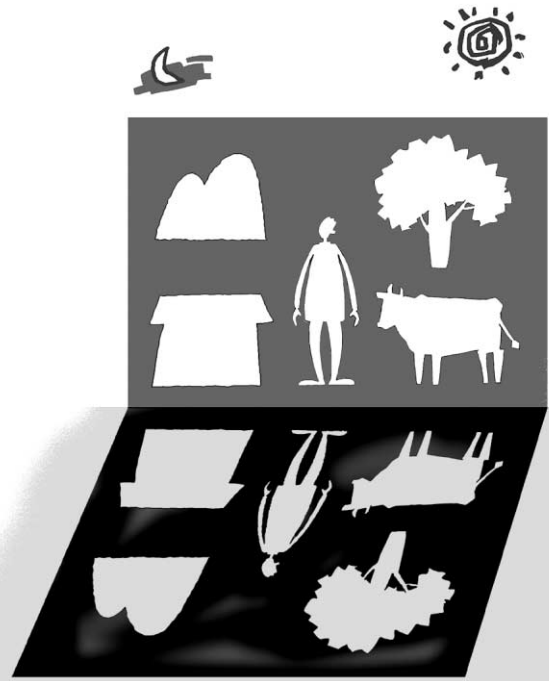


그림 · 최추현

29면에서 계속

능력이 있어야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조건 없는 사람으로서 일체 만물만생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겠니와 내 도량 아님이 없이 나투면서 아픈 사람에게는 약사가 돼서 응해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관세음이라 돼 주시고, 명이 짧은 자에게는 칠성이 돼 주시고, 좋은 데로 못 가는 사람에게는 지장이 돼 주시고, 물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용신이 돼 주시고,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지신이 돼 주시고, 관청의 일이 벌어졌을 때는 독성이 돼 주시고... 천차만별로 어느 거 하나 하나 아니 돼 주시는 게 없고, 아니 나누시는 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천백억화신이요, 천백억응신이요, 가만히 있으면 부처요 생각을 하면 법신이요 움직여왔다 하면 화신이요 응신이라. 마음 하나가 이렇게 구족하고 이렇게 광대무변한, 평등공법이면서도 활공공법이고 활공공법이면서도 수레공법으로서 이 세상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누구나가 그렇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컵도 흙을 물에 개서 바람에 말려서 불에 구운 것으로 어느 것 하나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컵이라는 이름이 이 세상에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수화풍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만약에 살다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데 합쳐져서 합성체로서 등장이 됐다. 흩어지면 물로 갈 거는 물로 가고 불로 갈 거는 불로 가고, 바람으로 갈 거는 바람으로 가고 흙으로 갈 거는 흙으로 갑니다. 그랬다가 또 다시 모이게 되면 또 모습을 바꿔 가지고 형성돼서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모습이 바뀌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주어지고, 현실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주어집니다. 미래가 주어지는 자체가 바로 오늘날 것입니다. 미래가 따로 있고 과거가

원망 안 하고 돌아간다면, 바로 상대방에서도 불이 켜지고 자기한테도 불이 켜져서 다 밝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 생길 것입니다.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말입니다.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신이 돼서, 부처님과 중생들이 돌 아나기에 어떠한 문제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나무들도 무정물들도 생물 전체가 다, 어떠한 문제를 생각했다 하면 같이 통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한테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나 아니 나누는 데가 없어서 금속과도 같고 전력과도 같다고 하십니다.

부처님이란 뭘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하는가. 내가 어느 거 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거 할 때에 여러분이 했다고 하겠습니까? 엄마가 됐을 때에 나라고 하겠습니까, 아내가 됐을 때에 나라고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서로 조건 없는 사람으로 이어지게 선행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마음에는 신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높지 않고 물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깊지 않습니다. 마음은 어디고 통하니까 그 속을 통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아무리 신이 높고 아무리 은산철벽이다 할 지라도 마음은 통하는 겁니다. 마음은 어디고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마음을 넓게 쓰십시오. 물로 보지 않는 눈으로 보고, 들로 보지 않는 귀로 듣고 마음을 넓혀서 모두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움츠리게 '요거는 요거고 조거는 조거다' 하고 적대시하게 되면 그 크나큰 진리를 타파하지 못하며 깨치지 못할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구에 붙어 있는 생물인데 이 지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시거나 합니까? 지구가 버스라면 우리는 그 버스 안에서 네 집 내 집, 네 걸상 네 걸상,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고 으름 네 것 내 것을 따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들어오다가도 나가요. 돈이

『경전과 함께 보는 붓다의 발자취』

저자와의 만남에 초대합니다

성지순례를 꿈꾸는 이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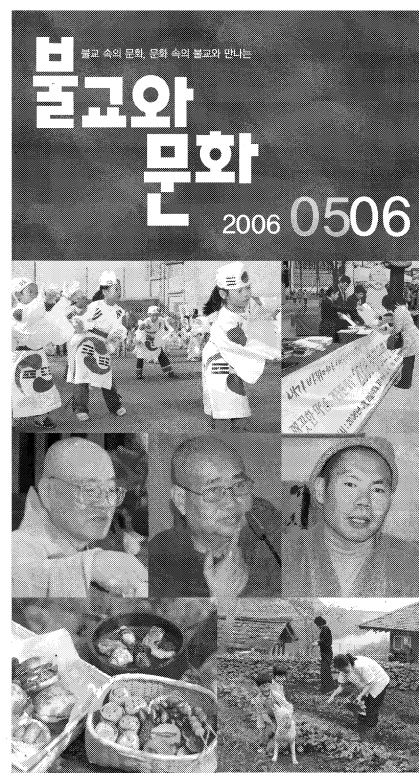
불교의 성지는 부처님께서 남기신 일생의 발자취이다. 성지순례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곳에서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 그리고 경전에는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경전과 함께 보는 붓다의 발자취』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닌 경전을 근거로 새로 쓴 부처님 일대기이다.

- 저자 | 이상규
- 일시 | 6월 16일(금) 오전 10시~12시
- 장소 | 불광교육원 대륜당(3층)
- 인원 | 150명(선착순 접수)
- 교재 | 『경전과 함께 보는 붓다의 발자취』
- 접수 및 문의전화 | 월간 『불광』 불광출판사 02-420-3200



李尙圭 | 1949 우연히 건이신경 강의로 인해 불교와 인연한 이상규 변호사는 1992년 고등고사로 합격한 후 미국의 영구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법제서 번역과 문고부 차관, 고려대 법학과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 원대법원 변호사협회(IFA)회장 등을 역임. 『신행정법』 『왕경법론』 『명미 행정』 『행정정승』 등을 13권의 책을 펴내기도 했다. 회감을 남기며 불교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하면서 2000년에는 『금강경의 세상』을, 최근에는 이항경 전관을 주제로 『제자부』 『전해오는 부처의 가르침』 7권으로 번역 출판하였다. 아직은 세속의 끈을 놓지 못한 일과를 보지만 아무 중 부는 독 해내어 불교수행과 공부에 전념하고 있다.

『(저대한불교진흥원(이사항 총사회)이 불교의 대중화·현대화·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유익한 잡지)』



종속화보 | 불기 2550(2006)년 부처님 오신 날
성전 스님의 신사의 풍경소리 | 부처님 길에 머물고 싶다
고산 스님의 지상법문 | 깨침의 소리, 나는 기쁨 100일 범위 "행복의 종자를 심어 부디 행복해지십시오"
2006 청정문운 |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보현 보살 10대 행원 해설 - "보현행원 실천하여 우리가 부처임을 깨닫자"
특집 | 마음 치료, 이계는 문화로 한다 - 문화예술과 대안치료
 미술, 음악, 무용 등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치료하는 이원비, 대안치료의 세계를 알아보았다. 문화 자유로움에는 어떤 것이 있고, 실제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 마음 치료란 무엇인가
 · 미술치료 - 미술은 마음의 표현이다
 · 음악치료 - 할방음악치료의 활용
 · 무용치료 - 춤과 명상을 융합한 몸 깨어나기
 · 서구에서 심리치료에 응용되고 있는 불교수행법
종법 스님의 일하는 자기부자가 알아야 할 불교교리
 선(禪)의 실질적 내용과 일상생활에서의 응용
불교심리학 | 심리치료로서의 불교 ②
지상종교 | 미얀마 파옥 사야도가 지도하는 부처님의 호르몬 수행법 ②
열린불교, 열린경쟁 | 신개념의 도심 총림(叢林), 불교타운 건립하는 영남대학교 대학원
한호를 읽고 떠나는 여행 | 지리산 일백고지 고운동 이상석 씨 가족
buddhism & music | 마음으로 듣는 명상음악 'Waking The Cobra'
문화기획 | 소설가 김중혁이 쓰는 비이탈을 시원으로 하는 신화와 불교
작은박물관을 찾아서 | 고판화박물관
국제불교 신학 | 하버드대학 일미 스님의 종교 위협어보기
 미국 백인불교의 양면성
지리산 대안 스님에게 배우는 현대인의 건강 법상
 사찰요리법으로 만드는 소풍 도시락
건강에세이 | 당신의 허리는 튼튼합니까?
2006년 여름(6월-8월) 주요 사찰 템플 스테이 일정표
역설시대 수행일정 | 금강산에서 선종(禪宗)을 드나들던 시산 대사의 후예들
생활 속의 불교생활 | 혼침의 노예, 훗날 후회가 나뉠때는 진짜 이유
(별지) 허벅지 돌이보는 테마여행 | 서울의 석비(石碑)